



# 생물다양성 보전

## 1. 멸종위기종 복원

□ 멸종위기의 토종 흰감국(*Chrysanthemum indicum* var. *albescens*) 세계 최초 복원

아모레퍼시픽은 국아농원과 10 여년에 걸친 복원작업과 가치화 연구를 통해 멸종위기인 흰감국을 복원하였습니다. 2012년 신품종인 '국아설화'와 '국아수울'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독점적 품종 보호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감국은 세계 500 여종의 국화 중 유일하게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감국 중에서도 흰감국은 예로부터 동의보감 등의 고문헌에서 백국우가(白菊尤佳)라 하여 그 효능이 으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흰감국을 찾아보기 힘들고 멸종위기에 처해있어, 감국에 대한 연구는 노란 감국에 대해서만 수행되어 왔으며, 흰감국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아농원과 강원도 일대에서 멸종위기의 토종 흰감국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종을 파종하여 복원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생육상태를 관찰하여 우수한 품종의 교배를 통해 최종적으로 향, 꽃 모양, 꽃 색이 뚜렷하고 안정감을 갖춘 신품종 2종을 최종 개발하였습니다. 이 같은 10 여 년에 걸친 복원작업 끝에 2012년 신품종인 '국아설화'와 '국아수울'에 대한 독점적 품종 보호권을 국립종자원으로부터 국아농원과 공동 획득하였고, 원천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국아설화



국아수울



※흰 감국의 효능 가치 발굴 → (2.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 생물다양성 자산화 연구).pdf 참조



## □ 토종 화귀콩 복원 및 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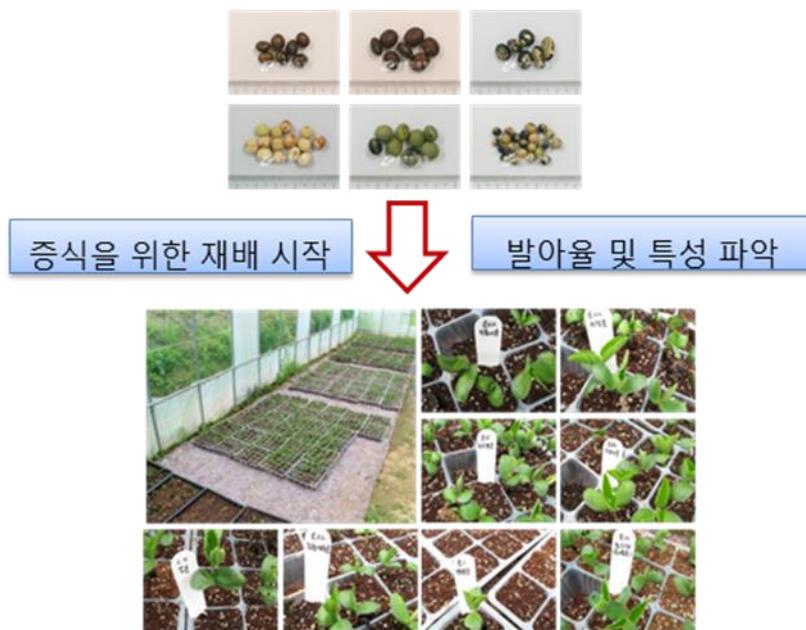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은 3 대 헤리티지 소재 중 하나인 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면서 우리나라 토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사라져가는 토종 화귀콩 140 여종의 복원작업을 진행하여 종자 확보 및 대량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콩은 만주와 한반도 일대가 원산지인 B.C. 3000 년 전 유물에서 콩이 출토될 정도로 우리 국민은 오랜시간 콩을 섭취하고 재배해 왔습니다. 야생종과 재배종의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최근 GMO 콩의 대두로 고유 토종콩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많은 품종이 미국으로 반출되어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3 대 헤리티지 소재 중 하나인 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토종 화귀콩 복원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11 년부터 농업진흥청으로부터 토종 화귀콩 140 여종을 분양받아 복원 및 증식을 위해 재배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발아율과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기초작업이 끝난 후 경기도 파주시에 재배 단지를 구축하여 본밭 및 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종자 증식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특이성과 생산성을 파악하여 품종별 생산성 및 형질 분류를 통한 품종 분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40 여종 토종 화귀콩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폭 넓은 효능 가치 발굴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토종 화귀콩의 효능 가치 발굴 → (2.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 생물다양성 자산화 연구)pdf 참조



## 2. 원료 생물다양성 침해 여부 검토 및 연구

---

아모레퍼시픽은 원료의 생물다양성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멸종위기 생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생물다양성 보전 방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생물다양성 보전 원칙을 준수하고 원료의 환경친화성을 강화하기 위해 IUCN(세계자연보전연맹)<sup>※1)</sup> 등의 국제 기준을 원료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원료의 멸종위기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491호), 국제적 멸종 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09-227호)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3. 생물다양성 헤리티지 강화

아모레퍼시픽은 생물 자원을 발굴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아리따운 제주식물 이야기' 발간

제주 자생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존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주 자생식물의 전통지식을 담은 '아리따운 제주식물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동백, 비자 등 8종을 포함하여 한라산 인근의 자생식물 등 20 종에 대한 정보와 피부 과학적 효능, 제주의 전통지식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 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현재 사용중인 제주 소재 식물에 대해서도 효능과 제주의 전통 지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아리따운 제주식물 이야기 구성>

1 식물정보	2 세밀화	3 피부과학효능	4 제주전통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 기본 정보 제공 - 식물 학명, 분포 특성,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으로 식물 이미지 표현 - 식물의 아름다움과 기업의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능 성분의 피부 베네핏 - 자사 연구 내용 수록 - 제주 식물의 연구가치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만의 식물 스토리 - 지역 기반의 고유성 표현 - 전통과 함께 한 스토리 전달</li> </ul>

#### □ 한국 원료 식물도록 <Beyond Flower> 출간

아모레퍼시픽은 한국 고유의 식물을 그린 세밀화 100 점이 수록된 원료식물도록<Beyond Flower>를 출간했습니다. 원료식물도록은 아모레퍼시픽이 창업 때부터 이어온 식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의 산물을 집대성한 것으로, 우리 고유의 식물을 기록·보존하고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은 2007년 한국 세밀화 1세대 작가인 송훈 선생과 손잡고 식물 세밀화 제작에 착수했으며, 7년간 전국 곳곳에 있는 한국 약용식물을 직접 찾아 다니며 완성한 100점의 작품을 원료식물도록으로 편찬·발간했습니다.

원료식물도록에는 인삼, 동백나무, 서리태, 녹차, 흰감국, 작약 등 아모레퍼시픽의 오랜 노하우가 집약된 주요 원료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식물에 대한 정보와 그림 표현 기법 등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작품은 사진으로 전할 수 없는 세밀한 구조와 형태를 자세하게 담아 우리 고유 식물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 세계자연보전총회(WCC<sup>주2)</sup> 공식 후원

아모레퍼시픽은 '자연의 회복력'을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공식후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제주 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제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고, 한국생태학회 주최로 개최된 '섬-연안지역 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 워크샵에서 자사의 제주 전통 지식 보존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주 1)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 자연과 자원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관련 국제기구

주 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 세계자연보전총맹(IUCN)에서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 □ 나고야 의정서 대응

아모레퍼시픽은 나고야의정서<sup>주1</sup>가 발효됨에 따라 2015년 나고야의정서 대응 CFT(Cross Functional Team)를 결성해 월 1회 국제적 법규 변화, 생물자원 특허 대응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용 중인 생물자원 유래 원료의 원산지·재배지를 확인했으며, 향후 이익 공유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한편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향후 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내 생물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생물다양성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주 1)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세가지 목표 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을 규정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